

비건 “대북협상 진전 없지만 포기 않을 것”

조속한 대화 의지 재확인 “한미 비용과 부담 나누며 동맹의 가치 증명해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시간) 대북 문제와 관련,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또한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동맹 간 비용과 부담의 분담을 강조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대북 증액이 필요하다는 뜻을 예들려 나타냈다.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로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 위싱턴사무소 송년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건 지명자는 “내 어깨 위에 놓인 무게를 느낀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1년

여 기간이었다”며 “우리 팀 전체에 힘든 일이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진맥진한 일이었지만 보상이 없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우리는 현실점에 우리가 희망했던 만큼 많은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은 매우 분명히 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미 교착 상태 속에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등 비핵화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북 특별대표로서의 활동을 회고하고 한국의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방한한 사실을 언급하고 서울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비건 지명자는 한미관계를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고 거론하고 “분명히 각자 사이 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치 시스템 내에서 동맹의 가치를 증명하고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나눌으로써 이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었지만 동맹을 귀하게 여기는,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이다. 우리는 매일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모두 그렇게 한다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맹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가올 수십 년간 서로의 이익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는 데 어떤 의심도 없다”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중립을 수 없는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6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20만명의 미국인이 사는

곳이라고 언급한 뒤 “미국과 한국은 동맹 이상이다. 우리는 친구다”라고 강조했다.

비건 지명자는 인사말이 끝난 뒤 북미 관계나 협상 상황, 한미 방위비 협상 주이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를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화가 한바도의 중대한 비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며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비건 지명자의 말을 인용한 뒤 “여러분 모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총파업 앞둔 파리 철도 프랑스 노동계가 정부의 연금 개편에 항의하기 위해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파리 생 라자르 역의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철도당국은 총파업 당일인 5일 전국 고속철 노선 가운데 90%가 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관방 “주일미군 경비, 합의 따라 적절히 분담”

트럼프 분담금 압박 방어 논리

일본 정부가 4일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는 미일 양국 간 합의에 기초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주일미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정상외교상의 대화를 상세히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런던 방문 중 기자들에게 ‘부자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조하면서 “내 친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말했다. 당신이 도외적이라고,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의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일미군 분담금 확대 압박에 방어 논리를 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日주요기업 100곳 중 27곳

“한일관계 악화 실적 악영향”

일본 주요 기업 100개 중 27개는 한일 관계 악화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이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주요 기업 100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11~2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 악화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4개 기업이 ‘다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3개 기업은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금은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답한 기업도 4개사였다.

현재도, 앞으로도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한 기업은 47개사였다.

한일 관계 악화가 실적에 다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 하나인 여행업체 JTB의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여행 예약이 80% 정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예약이 60~70%가량 줄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토 유지 JTB 전무는 “일본-한국 간 민간에 의한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세계 경기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미·중 무역 마찰에 의한 중국 경제의 감속(73개사)을 꼽았다.

북한 문제를 세계 경기의 우려 사항을 꼽은 기업은 없었다.

소니, 일본제철, 미쓰비시머티리얼, 닛산 자동차, NEC, 덴츠, 시세이도(資生堂), 캐논 등 주요 기업 100개사가 설문조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리스본항 도착한 소녀 환경운동가 툰베리 스웨덴 출신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가 범선을 타고 미국을 출발, 대서양을 건너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에 도착하고 있다. 툰베리는 이곳에서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中 올해 디폴트 171억달러...사상 최고 경신 눈앞

중국의 올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규모가 사상 최고를 향해 치닫고 있어 경기 둔화 속에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역할과 과도한 부채에 맞서는 기업들의 몸부림이 시시때때로 울렸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자체 집계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11월 이후 최소 15건의 디폴트가 추가로 발생해 연간 디폴트 금액이 1천204억위안(171억달러)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최고였던 작년의 1천219억위안에 간발의 차이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전체 채권시장 규모인 4조4천억달러에 비하면 작지만 중국 정부가 자급난에 처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디폴트의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의 애널리스트 왕잉은 “중국 당국이 모든 기업을 살리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의 올해 디폴트 우려는 부동산 개발과 철강, 신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일 베이징 광저우그룹은 만기가 돌아온 20억위안(2억8천500만달러)을 상환하는데 실패했고, 같은 날 작년 중국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던 동쉬광전과 기도 17억위안(2억4천만달러)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성추문’ 영국 왕자 모른다더니 트럼프, 함께 찍은 사진 ‘우수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추문’에 휩싸인 영국 앤드루 왕자(59)를 모른다고 했지만, 외신들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다수 제시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앤드루 왕자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그가 앤드루 왕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몇장 찍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는 당시 트위터에 ‘국빈 방문 이틀째 테리사 메이 총리도 함께 제인스 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찬 식사를 전하며 사진을 게재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NN이 지난 2000년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리라고 리조트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사진도 공개한 것이다. 이 사진에는 당시 트럼프의 여자친구였던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등장한다.

앤드루 왕자는 최근 버지니아 주프러리아 미국 여성이 자신이 17세였던 지난 2001년 미국 억만장자인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밀매돼 앤드루 왕자 등과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주프러는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제 사건은 무관한 섹스 스캔들이 아니다”라며 “이는 사람을 밀매하고, 권력을 남용한 왕실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왕실 측은 “앤드루 왕자는 결론이 이 여성과 성적 접촉이 없었다”며 “이 여성의 주장은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세대 부유세 가중세 2.4%~4.4%로 환율과 원리비 부담
- 저리채(저금리) 환율은 저금리채(저금리)에 비해 10% 이상
- 저리채(저금리) 환율은 저금리채(저금리)에 비해 10% 이상
- 저리채(저금리) 환율은 저금리채(저금리)에 비해 10% 이상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조정금리)

문의처

문충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